

#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갑식(경희대학교 정치학과)

## 1. 문제제기

1990년대 이후 북한정치의 화두는 단연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이다. 북한은 1990년대 식량난과 냉전체제의 해체 그리고 김일성 사망 및 지배체제의 불안정성 등 총체적 위기 상황을 고난의 행군<sup>1)</sup>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이 시기 북한 정치체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와 달리 이 위기상황을 군을 중심으로 극복하려는 이른바 선군정치가 출현했다는 것이다.<sup>2)</sup>

북한은 ‘선군정치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한 시대, 한 역사를 이끌어

- 
- 1) 여기서 ‘고난의 행군’ 시기는 좁게는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김정일체제 공식 출범 이전인 1994년 하반기부터 1997년까지를 말하나, 넓게는 북한의 체제위기 기간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를 의미한다.
  - 2) 물론 1990년대 이후 북한 정치체제의 기본 특징은 선군정치와 당정분리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당정분리에 대한 분석은 제외한다. 당정분리에 대해서는 김갑식, 『김정일정권의 권력구조』(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의 “제4장 위기극복과 정”을 참조.

은 승리의 기치'이며 '고난의 행군과 더불어 주체혁명의 새로운 한 시대, 새로운 한 세대, 새로운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시기로 인해 '역사의 계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그 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선군정치로 군사는 물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났으며 인간도 사회도, 투쟁과 생활도 새롭게 일신한 선군시대라는 완전한 하나의 새 시대가 개척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sup> 이처럼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 학계에서도 고난의 행군<sup>4)</sup>과 선군정치<sup>5)</sup>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 행되었다. 그런데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선군정치가 창시되었다

- 
- 3) 동태관,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백두의령장 김정일장군의 <고난의 행군> 혁명실록을 펼치며,” 『로동신문』, 2000년 10월 3일.
- 4) 이우영,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0); 최봉대, “북한사회 주민들의 멘털리티와 사회적 통합 기제,” 『현대북한연구』, 2권 2호(1999); 김경숙, “북한주민의 시장경제 의식화 방안,” 『북한조사연구』, 2권 2호(1999); 박형중·정세진, “고난의 행군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변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서울: 오름, 2003);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연구학회보』, 8권 2호(2004) 등.
- 5) 정성장,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관계,” 『국가전략』, 7권 3호(2001); 서동만,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관한 시론,”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4호(1998); 정영태, “북한 강성대국론의 군사적 의미: 김정일의 군사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7권 2호(1998); 최진욱, “북한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4권 2호(2001); 고유환·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국가화 연구,” 『서울평양학회보』, 창간호(2002); 김갑식, “김정일의 선군정치: 당군관계의 변화와 지속,” 『현대북한연구』, 4권 2호(2001); 정성장, “김정일의 선군정치: 논리와 정책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4권 2호(2001);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현대북한연구』, 4권 2호(2001);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2002); 박형중, “북한정치 연구의 쟁점과 과제,” 『현대 북한연구와 남북관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학회 공동주최 북한연구학회 2004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이기동, “북한의 신사고, 선군정치 그리고 정책변화,” 『통일정책연구』, 10권 1호(2001) 등.

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난의 행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에만 치중하였고,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는 고난의 행군과의 관계보다는 당군관계 변화 및 군사국가화 등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가 양자간의 상호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분석된 것이 아니라 각각 별개로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북한 정치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고난의 행군 → 혁명적 군인정신 → 선군정치’라는 일련의 담론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고난의 행군에 대한 천착을 통해 북한이 선군정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고민과 주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선군정치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sup>6)</sup>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북한이 ‘총포성 없는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고난의 행군의 내용과 북한의 인식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시대정신’인 ‘혁명적 군인정신’의 내용과 이것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을 고찰하며, 4장에서는 군사선행의 정치방식인 선군정치의 구체적 양상과 그것이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혁명의 주력군, 인민대중 및 노동계급 간의 관계, 당군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선군정치의 함의와 미래에 대해 알아본다.

---

6) 1980년대 후반 이래 북한학 연구방법론에서 내재적 접근 대 외재적 접근이 논쟁이 된 적이 있었다. 본고는 종래의 내재적 접근이 ‘운동’과 ‘실천’의 차원에서 ‘북한의 내재적인 사회작동원리’만을 규명하였다는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고난의 행군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한식 변화와 작동원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비교’ 이전에 북한의 변화를 내부로부터 읽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신내재적 접근방법’에 서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구갑우, “북한연구방법론의 심화,” 『북한사회의 입체적 이해와 북한연구』, 북한연구학회 주최 2004 연말학술회의 자료집, 237~243쪽 참조.

## 2. 고난의 행군: ‘총포성 없는 전쟁’

본래 ‘고난의 행군’은 1938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몽강현 남패자에서 장백현 북대정자에 이르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행군가를 의미했는데, 북한은 1990년대 위기상황을 ‘고난의 행군’이라 명명하고 있다. 당시의 극한 상황과 1990년대의 그것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세계적 판도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련이어 무너지고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승리를 요란스럽게 광고하며 제 세상을 만난 듯이 기고만장하여 날뛰던 그때, 나라의 형세가 간과할 수 없는 국면에 처하고 사회주의 조선의 존재를 두고 커다란 우려와 가시 돋친 랑설이 떠돌던 시기에 우리는 사회주의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민족의 생명의 어버이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잃었던 것이다. … 그에 편승이나 하듯 이번에는 또 수백년래에 처음 보는 무서운 자연재해와가 련이어 들쭉워졌다. 처음에는 대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간데 이어 그 다음에는 왕가물이 모든 것을 말리워 버렸다. 한 국가, 한 민족이 완전히 괴멸해버릴 수 있는 이런 최악의 형편에서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었던 조국수호전은 얼마나 준엄했는가. 그것은 말 그대로 선전포고 없는 전쟁,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세계적인 대전이었다.<sup>7)</sup>

1990년대 ‘경제의 정치화’로 인한 비효율성과 경직성, 강행적 발전전략으로 인한 속도전과 사상전의 한계, 냉전체제로 인한 무리한 중공업과 군수산업 중심의 개발전략 및 사회주의권에 대한 과도한 의존, 자금자족적 폐쇄경제 고수로 인한 기술수준의 낙후·산업구조의 왜곡·산업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1990년대 들어와서 계속되는 농업생산성의 약화 및 자연

7) 『김일성동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47쪽.

8) 동태관, 앞의 글.

재해 등은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였을 정도로 총체적 경제난을 야기하였다.<sup>9)</sup> 식량난이 가중되어 ‘미공급’이 시작되자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온갖 정치교육과 물리적 통제를 통하여 구축한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가 침식되기 시작했다.<sup>10)</sup>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의 생존력은 당기구의 규율과 응집성 그리고 조직화된 정치적 저항을 분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만약 경제난이 당구가 기구의 규율과 응집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쇠퇴의 원인이 된다. 당조직의 권위는 물질적 필요와 직업 배분에 있어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데 유지된다. 그런데 보상과 배급이 줄어들어 대안적인 통로(암시장)에 시민들이 의존하면 당기구의 규율과 응집성은 약화되고 사회주의 체제는 균열되기 시작한다.<sup>11)</sup> 이러한 점에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원인이 경제적 문제라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sup>12)</sup> 북한 역시 공식 계획경제의 약화와 배급제 마비 상황은 국가의 재분배정책에 의해 일상생활을 영위해온 주민들의 ‘조직화된 의존관계’(organized dependence)를 약화시켜 이들의 국가와 체제에 대한 순응력이 저하되고 정치사회적 기강이 이완되었다.<sup>13)</sup>

그런데 1990년대 북한체제의 심각성은 그 위기가 경제적 문제에만

- 9) 황의각, “북한의 경제침체: 개괄 및 총량분석,”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침체와 대응』(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5), 31쪽.
- 10)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서울: 통일연구원, 2004), 22쪽.
- 11) Andrew Walder, 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 Economic Origins of Political Decline in China and Hungar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p. 5, 7.
- 12) Daniel Chirot, “What Happended in Eastern Europe in 1989?,” in Daniel Chirot, ed., *The Crisis of Leninism and the Decline of the Left: The Revolutions of 1989*(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pp. 4~5.
- 13) 박형중·정세진, “고난의 행군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변화,” 36~37쪽;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서울: 도서출판 해남, 2004), 141~154쪽.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전 세계적 차원의 냉전의 해체가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은 북한의 ‘피포위 의식’<sup>14)</sup>의 심화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원근도 없고 냉전체제의 해체로 인한 체제불안감의 해소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다.<sup>15)</sup> 이러한 인식은 고난의 행군 시기 신년공동사설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의 책동이 전례 없이 강화되었고”(1995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시키고 사회주의 위업을 말살하려고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였다”(1996년),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흑심한 자연재해와 경제적 난관 속에서”(1998년). 또한 반세기 이상 북한체제를 이끌어왔던 ‘수령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북한체제에 커다란 충격과 손실이었다. 북한이 30여 년간 후계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1994년까지만 해도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력을 상당부분 이양받았지 권위까지는 완전히 전수받지 못한 상태였다.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이은 김일성의 사망은 일찍이 북한역사에서 있어본 적이 없는 엄혹한 시련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1990년대 위기상황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 미국의 봉쇄정책에 의해 북한이 식량난을 겪게 되었고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내심 두려워했던 것은 미국의 압박이나 식량난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아사자 속출 및 탈북자 대량 양산과 북한체제에 대한 회의가 예상치 못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했던 것 같다.<sup>16)</sup>

14) 북한의 기본적 대외인식은 제국주의의 공세에 포위되어 있다는 피포위 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와다 하루키, 고세현 옮김, 『역사로서의 사회주의』(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139쪽.

15)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홍용표, 『김정일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 정책』(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참조.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식량난이 1994년을 기점으로 기근으로 발전하였고 최소한 1998년까지는 지속되어 이 시기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sup>17)</sup>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김정일의 후계승계를 반대하는 정치적 파벌이 생겼다. 이것은 ‘세계정치를 보아도 그렇고 국제공산주의운동 역사를 보아도 모든 변화와 우여곡절은 수령의 서거를 계기로 생겨났으며 그로 인해 강하던 것이 약해지기도 하고 한길을 가던 것이 두 길, 세 길로 갈라지기도 했으며 붉은 것이 희어지기도 했다’<sup>18)</sup>는 주장에 의해 우회적으로, 그리고 그 정치적 파벌로 지목된 황장엽에 의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이렇듯 고난의 행군은 북한 스스로 “우리 당이 50년 동안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왔지만 최근 시기와 같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때는 없었다”<sup>20)</sup>고 고백할 정도로 매우 지난한 과정이었다. 특히 북한 내부의 ‘혁명성’ 탈각은 북한지도부로 하여금 존망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충분했다. 김일성이 1930년대 고난의 행군을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 극심한 식량난과 피로와의 투쟁,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간악한 적들과의 투쟁이 하나로 엉켜진 것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투쟁이 ‘자기 자신과의 투쟁’<sup>21)</sup>이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김정일도 1990년대 위기

16) 1998년 여름 북중 접경지역을 순회한 NGO 대표들은 김일성 배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배지는 종교적인 신앙심과 비슷한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인데, 이것이 고난의 행군 시기 돈과 식량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상징적인 불복종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나초스, 황재욱 옮김, 『북한의 기아』(서울: 다홀미디어, 2003), 292쪽.

17)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서울: 통일연구원, 2004), 52쪽.

18) 『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

19) 김재홍, “김정일체제의 통치이념과 권력실체들,” 『신동아』, 1998년 7월호(1998); 『월간조선』, 1997년 3월호(1997), 100쪽.

20) 황창만, “우리 당은 준엄한 시련 속에서 단련된 불패의 당이다,” 『로동신문』, 2000년 10월 5일.

의 심각성이 경제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정치사상적 동요와 패배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불멸의 향도’ 시리즈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미국 강경보수파들(은) 위기요 종말이요 하는 과장된 표현들이 있었지만 진실이 있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청맹과니는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의 경제적 난관이 사회주의 영상을 흐리우고 정치와 군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데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지는 그들의 평가보다 나라의 정세가 더욱 엄혹하였다. … 문제는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미국의 정보원들과 정세분석가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난관의 정신적 측면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의 대오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패배주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고 적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 속에서 숨은 형태로 지어는 공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난관에 겁을 먹고 주저앉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근로대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지휘성원들, 간부들 속에 있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었다. 김정일은 바로 여기에 문제의 엄중성을 보았다.<sup>22)</sup>

1990년대 위기상황의 핵심을 정치사상적 동요와 패배주의 확산으로 정리한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총포성 없는 전쟁’, 즉 ‘사상전’으로 규정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 낙관주의의 강화를 들고 나왔으며<sup>23)</sup>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만들어냈다.

21) 『김일성동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7권, 151쪽.

22) 송상원, 『총검을 들고』(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40~42쪽.

23)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정신은 제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며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패배주의와 동요를 모르고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락관주의 정신이며 그 어떤 안락도 바람이 없이 간고분투해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이다.” 『로동신문』, 1996년 1월 1일.



### 3. 새로운 시대정신: 혁명적 군인정신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선군정치는 혁명적 군인정신이 온 사회에 일 반화되는 과정에 정립되고 펼쳐지는 정치이다. 즉, 선군정치의 근본바 탕이 혁명적 군인정신이다.<sup>24)</sup>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해나갈 새로 운 담론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제기한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해방 이후 북한에 들어와 처음 방문한 곳이 강선의 노동계급이었던 반면, 김 정일이 김일성 사망 이후 첫 현지시찰로 조선인민군을 찾았다고 하면 서 이를 ‘군대를 믿고 군대에 의거하여 험로역경을 헤치며 미래를 열 어나가려는 정치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25)</sup>

인민군대의 위력으로 오늘의 난국을 헤치자! 적들과 총포성 없는 전쟁 을 하자! ... 수령님의 혁명역사는 총대를 틀어쥐리라 가르치고 있었다. ... 김정일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정신을 군인들이 창조해야 합니다. 1950년대 시대정신 을 로동계급인 천리마기수들이 창조했다면 오늘의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 는 시대정신은 혁명의 기동인 우리 군인들이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인들이 창조한 그 정신으로 온 사회를 무장시키고 들끓게 함으로써 수 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전략적 로선으로 될 것입니다.<sup>26)</sup>

북한이 이해하는 혁명적 군인정신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 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정신적 원천으로, 당이 맡겨준 전투적 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아무리 어려운 과업도 자체

---

24) 리금희, “선군정치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근본바탕으로 하는 독창적이며 위 력한 정치,” 『철학연구』, 2004년 2호(2004), 17쪽.

25)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16~17쪽.

26) 송상원, 앞의 책, 43, 55쪽.

의 힘으로 해내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는 자기 한 몸을 아낌없이 바쳐 싸우는 자기희생정신, 영웅적 투쟁정신'이다.<sup>27)</sup> 즉, 내핍과 인고 그리고 충성을 요구하는 담론인 것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정신이자 북한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정신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김정일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선군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김정일의 영도 아래 선군시대가 펼쳐져온 역사는 혁명적 군인정신이 창조되고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온 역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전 사회에 침투하여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가 실현되고 인민의 정치사상적 풍모가 몰라보게 달라져 혁명적 인민이 되었으며 북한은 사상강국이 된 것을 들고 있다.<sup>28)</sup>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도 혁명적 군인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사상전으로 규정하면서 경제회생과는 별개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중심으로 전 사회를 정치사상적으로 혁명화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어느 정도 달성된 일단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인민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이라는 모범을 창출하여 이를 일꾼들과 당원들 그리고 근로자들이 다 따라 배워야 할 투쟁정신이라며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sup>29)</sup> 우선 “우리 군대야말로 조선혁명의 고귀한 사상정신적 재보의 창조자, 선도자이고

---

27) 『로동신문』, 1997년 3월 15일.

28) 로동신문 편집국론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어나가자,” 『로동신문』, 2002년 8월 19일.

29) 김정일,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1997.3.17.),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92쪽.

사회주의 새문화의 무진장한 저수지이다. 인민군대가 창조한 사상과 도덕, 문화가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sup>30)</sup>며 이에 대한 혁명적 교양사업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의 격변기마다 제기되었던 영웅창출을 통한 대중동원의 방식이지만<sup>31)</sup> 고난의 행군 시기, 선군시대에도 많은 영웅들을 만들어냈다. 근 20년 동안 산림 조성과 보호에 투신한 리웅찬, 최첨단 과학기술성과인 특수합금원판, 새로운 전기 접점 재료를 연구·도입한 현영라, 마라톤 여왕 정성옥, 13년 동안 석탄전선을 굳건히 지킨 김유봉, 산골에서 세벌농사의 기적을 창조한 90년대의 애국농민 박옥희, 중소형발전소 건설방침 관철투쟁의 선구자 허용구 등이 대표적인 고난의 행군세대 영웅들이다.<sup>32)</sup> 그리고 2003년 9월 5~6일에는 ‘선군시대 영웅대회’를 개최하여 ‘총대 영웅’, ‘건설자 영웅’, ‘지식인 영웅’ 등을 다수 배출하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변심을 모르고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만을 받든 우리시대 영웅들처럼 위대한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자’고 독려하였다.<sup>33)</sup>

그런데 북한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들고 나온 데에는 무엇보다도 위기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군의 독립적 행보를 차단하려는 고려가 있었다. 북한 지도부가 군을 중시하는 동시에 군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혁명적 군인정신의 제기였던 것이다. 정치적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오지만 군이 정치적 통제를 벗어날 때 가장 위협

30)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자,” 『로동신문』, 1997년 5월 19일.

31)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차문석, “북한의 노동 영웅에 대한 연구: 영웅 탄생의 정치경제적 메커니즘,” 『사회과학연구』, 12집 1호(2004) 참조.

32) 『로동신문』, 1999년 11월 6일.

33) 『로동신문』, 2003년 9월 5일.

적인 적대세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sup>34)</sup>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과정을 보면서 그 주된 원인이 군대의 ‘비사상화, 비정치화, 당군분리, 정군분리’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이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 주권 국가의 전복을 겨냥하며 벌어지는 제국주의 폭군들의 강도적 침략행위가 이처럼 손쉽게 성사되고 며칠간의 반정부집회와 시위만으로 이처럼 빨리 정부교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였다.<sup>35)</sup>

또한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이후 세계정세를 “미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1극화세계’를 꿈꾸며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당시를 ‘총포성 없는 대결전으로 북한이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 인민으로서 존엄을 지키느냐’ 하는 매우 긴박한 상황으로 느끼고 있었다.<sup>36)</sup>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통합, 걸프전에서의 미국의 일방적 승리,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 등은 북한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충분했다. 북한은 경제나 군사나 하는 갈림길에 섰고 결국 ‘경제는 침체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군사가 무너지면 나라의 백년대계의 기틀이 허물어진다’며 군을 선택하였다.<sup>37)</sup>

34) 장달중, “김정일체제의 주체비전: 이데올로기, 당 그리고 군중을 중심으로,” 장달중 외, 『김정일체제의 북한: 정치, 외교, 경제, 사상』(서울: 아연출판부, 2004), 53~54쪽.

35) 로동신문 편집국론설, “사상과 신념의 총대를 주력으로 선군시대를 빛내여 나가자,” 『로동신문』, 2003년 12월 22일; “막강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세계 초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사회주의를 세계적 체제로 전환시키는데서 크게 기여한 이전 쏘련이 총 한방 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사회주의 배신자들이 군대를 비사상화, 비정치화한데 있다. 인민들 속에서 비록 사상적으로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군대만이라도 사상적으로 견결하고 사회주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다 했더라면 그러한 비극적인 사례는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최순옥, “선군정치는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방식,” 『철학연구』, 2001년 3호(2001), 16쪽.

36) 최학근,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은 가장 철저한 반제지주사상,” 『철학연구』, 2003년 1호(2003), 11쪽.

37)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북한이 군을 선택하게 된 과정은 김일성 사망 이후 갑자기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보다 이전인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지켜보면서부터 결정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정일이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으로 피선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군에 대한 리더십을 확장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들어와서였다. 김정일은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취임하였고, 이후 199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으며, 1992년 4월 군 원수 칭호를 부여받고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명실상부하게 군의 지도권을 김일성으로부터 이양받는다. 이 시점은 북한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체제통정성의 위기가 닥치고 당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때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이다.<sup>38)</sup> 김일성 사망 이전에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추진할 토대, 혹은 최소한 김정일이 인민군을 장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김일성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하겠다.<sup>39)</sup>

다음으로 북한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들고 나온 이유는 고난의 행군을 뚫고 나갈 새로운 혁명세력이 필요해서였다. 김정일은 1996년 12월 당비서들에게 했다는 비밀연설에서 ‘당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당간부들이 사업을 혁명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며 당일꾼들의 무사안일주의를 매우 심각하게 질타하고, 반면 ‘인민군 군인들의 사상정신 상태를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군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보였다.<sup>40)</sup>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 대내외적 압박 속에서 당의 대중통제

38) 이대근, 『북한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서울: 한울, 2003), 72~73쪽.

39) 황장엽에 따르면, 김정일은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일성이 생전에 자신에게 절대로 경제사업에 맡겨들지 말고 당과 군대사업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15쪽.

40)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상태가 되고 있다”(1996.12.7.), 『월간조선』, 1997년 4월호(1997), 307~312쪽.

력이 약화되고 노동계급의 혁명성이 저하된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군의 강력한 기율과 조직력을 활용하여 사회기강을 회복하고 이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의도로 파악될 수 있다.<sup>41)</sup>

통상적으로 기존 영토 내에서 효율적인 통치력 발휘가 전 영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통치력의 공백지대’(empty territories)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치력 강화방안으로는 군의 동원이라는 물리력·폭력적 수단과 높은 조직력이 가장 보편적이었다.<sup>42)</sup> 또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가 체제의 존재를 위협할 때 정책과 구조를 변화시켜 적응해야 하는데, 이때 변화를 주도하는 지도자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지지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폐쇄된 북한체제에서 가장 현대적이며 근대적인 조직체인 북한군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 가장 적절했던 것이다.<sup>43)</sup>

결국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 당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이데올로기 엘리트의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대응책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들고 나와 인민군을 사상과 조직 그리고 동원운동의 모델로 위치 지웠고 그것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것이다. 그 결과 북한군은 직업적인 군(professional army)보다는 혁명적 군(revolutionary army)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sup>44)</sup>

---

41) 서보혁, 『북한 정체성의 두 얼굴』(서울: 책세상, 2003), 139쪽.

42) Joseph LaPalombara, “Penetration: A Crisis of Government Capacity,” in Leonard Binder et al., *Crisis and Sequences in Political Development*(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라팔롬바라, “침투: 정부능력의 위기,” 민준기·신정현 공역, 『근대화와 정치발전: 정치위기의 극복』(서울: 법문사, 1974), 253~261쪽.

43) 이석호,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군의 역할,”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427쪽.

44) 장달중, 앞의 글, 53쪽.

#### 4. 선군정치: 군사선행의 정치방식

북한은 선군정치의 시작이 “1995년 1월 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박술 초소를 찾으신 날은 이 땅우에 선군정치의 첫 포성이 울린 역사의 날”<sup>45)</sup>이라고 하면서 1995년 정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북한 공식문헌에 나타난 것은 1998년 5월부터이다. 1998년 5월 26일 『로동신문』의 “군민일치로 승리하자”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199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선군혁명명도’라는 개념이 구체화되었고, 1999년 6월 16일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에서 김정일의 독특한 정치방식으로 정립되었다.

선군정치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정치이다.<sup>46)</sup> 여기서 군사선행의 원칙은 군사를 국사 중의 제1국사로 내세우고 군력 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사에 정책의 제1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인민군대를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 먼저 최정예 부대로 만들며 국방력 강화에 우선적인 힘을 넣는 것이다. 따라서 선군정치에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제1기둥, 주력군으로 바라본다.<sup>47)</sup>

또한 선군정치에서 군은 단순히 전쟁과 조국방위를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함께 수행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기, 식량, 석탄, 금속, 철도운수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주공전선에 인민군대를 내세워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 에너지난으로 경제전반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인민군대가 그 막

45) 『로동신문』, 2000년 11월 18일.

46)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평양: 평양출판사, 2000), 26쪽.

47) 김철우, 앞의 책, 27쪽.

힌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경제의 전반분야에서 활성화, 정상회복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8)</sup> 이어 북한은 선군시대의 경제노선으로 국방공업 우선 원칙을 핵심으로 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하자는 새로운 경제운영방침을 제시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우리 군대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나날이었다. 우리의 인민군 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대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것처럼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혁명의 수뇌부를 한목숨 바쳐 결사옹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제일동지, 제일충신들이 바로 우리 군대였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결사관철의 구호를 맨 먼저 추켜든 것도 우리 군대였다.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우고 나라의 토지를 눈이 번쩍 뜨이게 변모시켰으며 온 나라에 현대화의 열풍을 몰아온 우리 군대의 창조적 투쟁은 조국 땅위에 강성대국 건설의 진격로를 열어 놓은 결정적 요인이었다.<sup>49)</sup>

선군정치의 개시와 더불어 인민군대가 북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위에서 살펴본 혁명적 군인정신의 전 사회적 확산, 군민일치·원군기풍 등을 비롯하여 군인사의 주석단 서열 상승, 사회통제기구의 인민무력부 편입, 김정일의 인민군 현지지도, 그리고 1998년 헌법 개정이다.

주석단 서열 변화를 보면, 1994년 7월 장례위원회 명단에서는 총참모장을 제외한 군 관련 인사는 부총리(급) 뒤에 나열되어 있었는데, 1995년 10월 당창건 50주년 주석단 서열은 이전과 약간 달랐다. 오진우의 사망으로 공석이었던 인민무력부장에 최광이 취임하면서 인민무

48) 위의 책, 38, 43, 120쪽.

49) “사회주의 사회에서 혁명군대의 주도적인 지위와 역할,” 『로동신문』, 2002년 11월 11일.



력무장이 외교부장 앞에 놓이게 되었고, 군 관련 인사의 위치도 ‘기타 당비서’와 부총리(급) 앞에 놓였다. 그러다 1996년 7월 김일성 사망 2주기 추석단부터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때 인민군 최고위 간부들이 정치국 후보위원 앞에 섰고, 1998년 9월 이후부터는 국방위원회가 강화되자 정치국 중심의 군력순위는 완전히 무시되었고, 당내 서열과 상관없이 군 관련 인사의 부상이 뚜렷하였다.

<표 1> 당내 서열 변화와 군 인사의 부상<sup>50)</sup>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1995년 10월 당 창건 50주년		1996년 7월 김일성 사망 2주기		1998년 9월 이후 10기 최고인민회의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정치국 위원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부주석	정치국 위원	부주석	상임위원장	
	총리		총리		총리	국방위 제1부위원장	
	부주석		인민무력부장		인민무력부장	내각총리	
	외교부장		외교부장		외교부장	최고인민회의의명예부위원장, 인민군원수, 총참모장, 인민 무력상, 일부국방위원	
	총참모장		당 비서		당 비서		
	당 비서		기타		기타	기타 정치위원	
	기타						
정치국 후보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군 요 직	원수	정치국 후보위원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당 비서	인민군원수	정치국 후보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당 비서		
	인민군차수						
부총리(급)	당 비서	당 비서	인민군차수				
인민군차수	부총리(급)	부총리(급)	부총리(급)				
		인민군차수	부총리(급)				

\*주: □ 군 인사

50) 이종석, “김정일시대의 조선노동당: 위상·조직·기능,” 이종석·백학순,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성남: 세종연구소, 2000);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운영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4권 제3호(성남: 세종연구소, 1997) 참조.

인민군의 강화는 김정일의 현지지도에서도 드러난다. 북한에서 현지지도는 최고지도자의 활동반경과 사업의 중요성<sup>51)</sup>을 보여주는데, 김정일은 1990년대 후반기 5년 동안에 12만여 리를 걸었고, 430여 개 단위의 인민군 부대·구분대들을 현지시찰하였다고 한다.<sup>52)</sup> 또한 북한은 인민군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조직을 일부 개편하였다. 전 사회 통제기관을 국방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인민무력부 산하로 재편성한 것이다. 사회안전을 담당하는 인민보안성 소속 인민경비대와 국경경비와 반란군 진압을 하는 국가안전보위부 휘하의 국경경비대총국, 호위총국 등을 인민무력부 산하로 편입하면서 군을 통한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sup>53)</sup>

북한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개정하면서 국방위원회를 종래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그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방위원장의 직책이 헌법에서 규정된 이상인 ‘사실상의 국가수반’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포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은 국방위원장의 직책을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군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북한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직책’<sup>54)</sup>이라고 밝혀, 국방위원장이 기존의 군통수권에다 정치·경제분야 통솔권까지 행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은 이로 인해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

51)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164.

52) 김철우, 앞의 책, 173쪽.

53)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계간 사상』, 1997년 가을호(1997), 144~145쪽.

54) 『로동신문』, 1998년 9월 6일.

의 지위와 권능을 격상시킨 ‘군 중시의 국가정치체제’를 수립하였다.<sup>55)</sup>

이러한 선군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북한 주장과 달리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김일성 생존시까지 ‘노동계급은 피착취근로대중 가운데서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며 공산주의 미래를 대표하는 유일한 계급이다. 노동계급만이 전체 근로대중의 근본이익을 대표하고 옹호할 수 있으며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sup>56)</sup> 그런데 선군정치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뒤집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북한은 ‘혁명의 주력군’은 혁명의 주체의 구성에서 핵심을 이루고 선도자적 역할을 하는 역량, 즉 혁명의 주체의 다른 계급, 계층, 사회적 집단의 본보기가 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 혁명의 제일기둥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의 어느 계급, 계층 또는 사회적 집단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는 것은 그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그의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또 어떤 혁명에서나 고정불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순수 계급관계에 기초해서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sup>57)</sup>

다시 말하면, 지난 시기 노동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처지와 사명을 자각한 혁명적인 계급으로서 피압박근로인민대중의 사회계급적 해방과 세계의 변혁과정을 추동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사회

---

55) 북한은 군 중시의 정치체제가 ‘이집트의 군사총통제나 1970년대까지 많은 나라에서 존재했던 군정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가기구 자체를 군사체제화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체제에서 군사를 우선시하고 군사분야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 높이고 권능을 규제한 정치체제’라며 군사독재와의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철우, 앞의 책, 23~24쪽.

56)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제』(서울: 지평, 1989), 67쪽.

57) 리영섭, “선군시대에 새롭게 밝혀진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주력군에 관한 사상,” 『철학연구』, 2004년 1호(2004), 30쪽.

주의 건설에서 반드시 노동계급을 선봉에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어길 수 없는 하나의 철칙으로 공인되어 왔는데, 이제 시대가 상당히 진전되었고 사회적 환경도 계급관계도 노동계급의 처지도 크게 달라졌으므로 혁명의 주력군 문제를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sup>58)</sup>

이러 북한은 시대적 환경 그리고 노동계급의 노동과 사회적 처지, 노동운동의 실태 등을 볼 때, 오늘의 노동계급은 산업자본주의 시대나 프롤레타리아혁명 시기의 노동계급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생산과 건설의 현대화가 추진됨에 따라 노동계급의 생활적 기초가 달라지고 노동은 더욱더 기술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으며, 노동계급대열이 인텔리화되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보다 기술노동, 지능노동,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독점자본의 지배가 강화되어 반동적인 부르주아 사상문화가 범람하여 노동계급의 계급적 각성과 의식화, 혁명화를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sup>59)</sup> 따라서 혁명의 제일 생명선인 반제군사전선을 담당하고 있고 혁명성, 전투력, 조직성이 가장 강한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 된다고 주장한다.<sup>60)</sup> 나아가 현재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정치군사적 압력과 경제적 봉쇄, 사상문화적 침투 등 온갖 지배주의적 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첨예한 정세이기 때문에 노동계급도 군대가 있는 조건에서만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61)</sup>

58) “선군정치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정치방식,” 『철학연구』, 2004년 2호(2004), 15쪽.

59) “현시대 사회계급관계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 『로동신문』, 2004년 8월 13일.

60) 리영섭, 앞의 글, 30~32쪽.

61) 리영섭, “선군정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생명선,” 『철학연구』, 2004년 3호(2004), 15~16쪽. 하지만 2000년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노동계급의 선진성

또한 북한은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 하려면 무엇보다도 혁명무력이 튼튼해야 하므로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62)</sup> 즉,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들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집단이 인민군대이므로 인민군대를 강화해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군정치가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누구에 의한’(주력군) 혁명보다는 ‘누구를 위한’(주체) 혁명의 논리를 전개하여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간의 모순을 탈피하려 하고 있다.<sup>63)</sup>

다음으로 군이 강화되고 당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과연 당과 군의 위치가 전도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관심거리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당 공식기구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당간부에 대한 김정일의 비판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운 선군정치에서도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빼놓지 않고 있다. 선군정치는 군대가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해야 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sup>64)</sup> 즉, 김정일의 시대의 당군관계도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고 군대는 당의 전략적 목표, 과제 실현을 무장으로 받드는 기둥이라는 기존의 당군관계 기본 원칙이 지

---

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남아 있다. “로동계급은 자주성과 혁명성이 가장 강한 선진계급으로서 단결력과 조직력이 강하고 집단주의 원칙을 자기 존재와 발전의 근본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활동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성적 요구를 가장 높이 체현하게 된다.” 박용식,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철학연구』, 2000년 3호(2000), 16쪽.

62) 김통진, “주체사상은 선군정치의 뿌리,” 『철학연구』, 2004년 2호(2004), 10쪽.

63) 박형중 외, 『김정일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 43쪽.

64) 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년 1호(1999), 18쪽.

속되고 있다. 선군정치에서도 당의 영도는 ‘군대의 생명선’이 되며 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다. 따라서 당과 군대가 서열상 누가 선차냐 할 때 당이 앞자리에 놓이며 ‘군당’이 아니라 여전히 ‘당군’으로 당과 군의 관계가 정립된다.<sup>65)</sup> 결국 선군정치에서는 군대 안에서 당조직들의 권위를 더욱 높이고 그 역할을 강화하여 인민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선로동당기를 높이 들고 나가는 당의 군으로서의 진면모를 착실히 다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당의 유일적 영도 아래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 같은 규율과 당풍에 기초한 군풍의 확립, 군정배합을 잘하는 문제 등 당의 영도체계 확립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내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6)</sup> 이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목도하면서 군의 비사상화, 비정치화를 붕괴의 주요원인으로 파악한 북한으로선 당연하다 하겠다.

현실에 있어서도 군이 당을 압도하지는 못한다. 인민군대 내에는 당중앙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각급 당조직과 군당위원회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등 당조직들이 조직되어 있어 이들이 군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총정치국은 인민군대의 하부발전 전투단위인 중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당지도기관과 정연한 당정치조직을 가지고 군인들을 조직 및 사상적으로 지도·통제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10위 내외)보다 군대 내 당적 지도와 정치사업을 담당하는 총정치국장 조명록(3위)이 서열상 상위에 놓여 있다. 또한 1998년 9월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영남은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추대하자고 보고하였는데, 보고문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이라는 글귀가 있다. 실제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하여튼

65) 김철우, 앞의 책, 49~50쪽.

66) 위의 책, 150쪽.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의 정치적 기능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다.<sup>67)</sup>

이처럼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운 선군정치를 제기함으로써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하려 하지만 선군정치는 주체사상과 일정한 충돌지점을 가지고 있다.<sup>68)</sup> 물론 북한은 ‘주체의 선군정치’라는 절충의 방식으로 또는 ‘변용을 애써 부정하려는 자기포박식’ 선언적 강조로 그 모순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선군정치의 출현으로 지난 반세기 이상 북한을 지배해온 주체사상의 사회적 규정력은 약화되고 있다 하겠다.

## 5. 결론에 대신하여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1930년대 항일혁명, 1950년대 전후복구, 1990년대 총체적 위기 등은 말 그대로 ‘고난’과 ‘시련’이 중첩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은 현재적 관점이지만 체제존립을 걱정할 정도로 북한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가 몰아친 시기였다. 북한은 이 위기의 원인을 경제난, 자연재해, 미국의 봉쇄정책에서도 찾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객관적 위기상황에서 비롯한 인민들

---

67) 선군정치의 당군관계에 대해서는 김갑식, “김정일의 선군정치: 당군관계의 변화와 지속,” 65~69쪽 참조.

68) 본고에서는 북한에서 선군사상 일색화가 2003년 이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군사상과 주체사상 간의 문제를 실천이데올로기와 순수이데올로기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을 제외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광승지, “김정일 시대의 북한 이데올로기: 현상과 인식,” 『통일정책연구』, 9권 2호(2000); 김근식, “1990년대 북한의 체제정당화 담론: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철학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8권 2호(1999); 박형중 외, 『김정일시대 북한의 정치체제』의 “II장 통치 이데올로기의 지속성과 변화” 등 참조.

의 정치사상적 동요와 혁명성 탈각으로 바라보고 이 사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제기하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과정과 미국의 봉쇄정책을 지켜보면서 군대의 중요성을 실감하였고, 노쇠화된 당과 노동계급을 대신할 혁명의 대안세력으로 인민군대를 선택하였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바로 이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을 함께 하려는 정치방식이다.

2005년은 선군정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은 2005년 2월 ‘선군혁명총진군대회’를 개최하며 ‘선군은 주체조선의 불패성의 상징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라며 앞으로도 선군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sup>69)</sup> 이를 위해 북한은 이미 선군정치의 시원이 김일성에 있다고 주장하고 선군‘정치’를 선군‘사상’으로 격상시켜 혁명과 건설의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내세우며 선군사상 일색화를 도모하고 있다. 선군정치에 대한 대대적인 의식화 과정을 볼 때, 북한은 앞으로도 당분간 인민군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선군정치가 강화되면 될수록 역으로 그만큼 효용도가 약해진다는 데 있다. 선군정치라는 ‘긴장체제’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매우 효율적일 수 있으나 긴장이 일상화 국면에 들어서면 그 효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선군정치를 계속 강화하겠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선군정치의 조건으로 내세운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이라는 단서는 의미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이른바 ‘제국주의’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면 선군정치의 변형은 무방하기 때문이다. 즉, 북핵문제

---

69)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혁명총진군 앞으로!” 『로동신문』, 2005년 2월 2일.



가 해결되고 북미간 관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미제국주의’ 관점은 약화될 수 있고 선군정치는 그 긴장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반제국주의 노선이 북한체제 유지와 대내통합의 주요기제였기 때문에 당장 완전한 폐기는 무리일 것이고 다만 미국, 일본 등을 적시하지 않은 형태, 제국주의에 대한 추상화 수준을 높여 일반적 의미에서 반제국주의 노선을 천명하고 제국주의의 대항개념인 민족주의(남북공조)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의 선군정치는 현실 조응력을 높여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3월 15일 / ■ 채택: 4월 8일

## 참고문헌

### <1차 자료>

- 『김일성동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사회주의 사회에서 혁명군대의 주도적인 지위와 역할,” 『로동신문』, 2002년 11월 11일.
- “선군정치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정치방식,” 『철학연구』, 2004년 2호(2004).
-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상태가 되고 있다”(1996.12.7.), 『월간조선』, 1997년 4월호(1997).
-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혁명총진군 앞으로!,” 『로동신문』, 2005년 2월 2일.
-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자,” 『로동신문』, 1997년 5월 19일.
- “현시대 사회계급관계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 『로동신문』, 2004년 8월 13일.
- 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년 1호(1999).

- 김통진, “주체사상은 선군정치의 뿌리,” 『철학연구』, 2004년 2호(2004).
-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평양: 평양출판사, 2000).
- 김정일,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1997.3.17.), 『김정일선집』, 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 동태관,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백두의 평장 김정일장군의 <고난의 행군> 혁명실록을 펼치며,” 『로동신문』, 2000년 10월 3일.
- 로동신문 편집국본설, “사상과 신념의 총대를 주력으로 선군시대를 빛내어나가자,” 『로동신문』, 2003년 12월 22일.
- \_\_\_\_\_,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위대한 선군시대를 빛내어나가자,” 『로동신문』, 2002년 8월 19일.
- 리금희, “선군정치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근본바탕으로 하는 독창적이며 위력한 정치,” 『철학연구』, 2004년 2호(2004).
- 리영섭, “선군시대에 새롭게 밝혀진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주력군에 관한 사상,” 『철학연구』, 2004년 1호(2004).
- \_\_\_\_\_, “선군정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생명선,” 『철학연구』, 2004년 3호(2004).
- 박응식,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철학연구』, 2000년 3호(2000).
-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서울: 지평, 1989).
- 송상원, 『총검을 들고』(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 최순옥, “선군정치는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방식,” 『철학연구』, 2001년 3호(2001).
- 최학근,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은 가장 철저한 반제자주사상,” 『철학연구』, 2003년 1호(2003).
- 황창만, “우리 당은 준엄한 시련 속에서 단련된 불패의 당이다,” 『로동신문』, 2000년 10월 5일.

## <2차 자료>

- 고유환·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국가화 연구,” 『서울평양학회보』, 창간호(2002).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 이데올로기: 현상과 인식,” 『통일정책연구』, 9권 2호(2000).
- 구갑우, “북한연구방법론의 심화,” 『북한사회의 입체적 이해와 북한연구』, 북한연구학회 주최 2004 연말학술회의 논문집.
- 김갑식, 『김정일정권의 권력구조』(과주: 한국학술정보, 2005).
- \_\_\_\_\_, “김정일의 선군정치: 당군관계의 변화와 지속,” 『현대북한연구』, 4권 2호

- (2001).
-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연구학회보』, 8권 2호(2004).
- 김경숙, “북한주민의 시장경제 의식화 방안,” 『북한조사연구』, 2권 2호(1999).
- 김근식, “1990년대 북한의 체제정당화 담론: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철학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8권 2호(1999).
- \_\_\_\_\_,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2002).
- 김재홍, “김정일체제의 통치이념과 권력실세들,” 『신동아』, 1998년 7월호(1998).
- 나츠스 저, 황재욱 역, 『북한의 기아』(서울: 다홀미디어, 2003).
- 박형중 외, 『김정일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
-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서울: 도서출판 해남, 2004).
- \_\_\_\_\_, “북한정치 연구의 쟁점과 과제,” 『현대 북한연구와 남북관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학회 공동주최 북한연구학회 2004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 박형중·정세진, “고난의 행군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변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서울: 오름, 2003).
- 서동만,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관한 시론,”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4호(1998).
- 서보혁, 『북한 정체성의 두 얼굴』(서울: 책세상, 2003).
-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와다 하루키, 고세현 옮김, 『역사로서의 사회주의』(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운영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4권 제3호(성남: 세종연구소, 1997).
- 이기동, “북한의 신사고, 선군정치 그리고 정책변화,” 『통일정책연구』, 10권 1호(2001).
- 이대근, 『북한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서울: 한울, 2003).
- \_\_\_\_\_,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현대북한연구』, 4권 2호(2001).
- 이 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석호,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군의 역할,”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이우영,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이종석, “김정일시대의 조선노동당: 위상·조직·기능,” 이종석·백학순, 『김정일시

- 대의 당과 국가기구』(성남: 세종연구소, 2000).
- 장달중, “김정일체제의 주체비전: 이데올로기, 당 그리고 군중을 중심으로,” 장달중 외, 『김정일체제의 북한: 정치, 외교, 경제, 사상』(서울: 아연출판부, 2004).
- 정성장,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관계,” 『국가전략』, 7권 3호(2001).
- \_\_\_\_\_, “김정일의 선군정치: 논리와 정책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4권 2호(2001).
- 정영태, “북한 강성대국론의 군사적 의미: 김정일의 군사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7권 2호(1998).
- 차문석, “북한의 노동 영웅에 대한 연구: 영웅 탄생의 정치경제적 메커니즘,” 『사회과학연구』, 12집 1호(2004).
- 최봉대, “북한사회 주민들의 멘털리티와 사회적 통합 기제,” 『현대북한연구』, 2권 2호(1999).
- 최진욱, “북한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4권 2호(2001).
-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계간 사상』, 1997년 가을호(1997).
- 홍용표, 『김정일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황의각, “북한의 경제침체: 개괄 및 총량분석,”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침체와 대응』(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5).
-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Chirot, Daniel, “What Happended in Eastern Europe in 1989?,” in Daniel Chirot, ed., *The Crisis of Leninism and the Decline of the Left: The Revolutions of 1989*(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LaPalombara, Joseph, “Penetration: A Crisis of Government Capacity,” in Leonard Binder et al., *Crisis and Sequences in Political Development*(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라팔롬바라, “침투: 정부능력의 위기,” 민준기·신정현 공역, 『근대화와 정치발전: 정치위기의 극복』(서울: 법문사, 1974).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Walder, Andrew, 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 Economic Origins of Political Decline in China and Hungar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Arduous March’ and ‘Military-First Politics’ in the 1990’s

Kap-Sik Kim(Kyunghee Univ., Political Science)

‘Arduous March’ period of the 1990’s was one of the greatest crises in the history of North Korea. While North Korea ascribed this crisis’ causes to economic difficulty, natural disasters, and the containment policies of the USA, it basically recognized those difficulties resulting from politico-ideological disturbances and disappearing revolutionary spirit generated by environmental crisis. Thus, it agitated revolutionary military spirit to win this war of ideology. Kim Il-sung and Kim Jung-il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military after the fall of East European socialist states and the containment policies of the USA. From this point of view, they chose people’s army as a substitute for decrepit party and labor class. The ‘Military-First Politics’ of Kim Jung-il is the political strategy on which people’s army as the main force of revolution leads not only the national defense but also the ‘socialist construction.’ Although ‘tension system’ of the ‘Military-First

Politics' is very effective for some time, if the tension is routinized, the effectiveness might decrease. Thus, North Korea will continue the 'Military-First Politics' for the time being, but might modify the contents of it as circumstances change.

Key Words: Arduous March, Military-First Politics, Revolutionary Military Spirit, People's Army, North Korea

## 필자 약력(계재순)

### 김갑식

경희대학교 강사 및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992년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에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북한의 당·군·정 역할분담체제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로 정치학 박사학위논문을 받았다. 주요 논저로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관 변화”(2002), “세계화·정보화와 북한의 국가정체성: ‘주체 사회주의’의 지속과 변화”(2004), 『김정일정권의 권력구조』(2005) 등이 있다.